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사일러스 마너』에 나타난
사회계층적 행동양식의 차이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邊 溫 和

2007年 8月

『사일리스 마너』에 나타난 사회계층적 행동양식의 차이

指導教授 梁永洙

邊溫和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邊溫和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年 8月

<국문초록>

『사일러스 마너』에 나타난
사회계층적 행동양식의 차이

邊 溫 和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엘리엇(George Eliot, 1819~1880)은 산업혁명기의 급변하는 영국 사회를 구도자적인 안목으로 통찰하고자 하였다.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복잡다단한 역동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고 시대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며 작가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전환기의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고민했고 사회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사회계층적 성격과 개인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엘리엇은 빅토리아(Victoria)조 영국 사회의 여러 계층과 관계를 맺고 고뇌 어린 종교적 편력을 거쳤던 작가답게 그녀의 작품세계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준다. 『사일러스 마너』의 시대적 배경은 18세기 말에서 1832년 선거법 개정을 전후한 시기로 계층간의 갈등과 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와는 동떨어진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래블로(Raveloe) 마을은 중간계층의 대약진이 이루어지는 공업도시의 계층이동, 사회변동과 거리가 먼 지역으로 지방지주의 권위가 막강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촌이다. 래블로에 오기 전에 주인공 사일러스(Silas)가 살았던 랜턴 야드(Lantern Yard)는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화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근대 공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업도시이며 사회개방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이다.

사일러스는 고향 랜턴 야드에서 잃어버린 것을 래블로에서 회복하려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적응해 나간다. 갓프리(Godfrey)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에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 또한 시골에서만 살아온 지역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도시의 계층이동 현상과 중간계층의 약진과 지주계층의 몰락, 산업화되는 도시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다. 과거에 얽매어 새로운 사회 흐름을 읽지 못한 편협한 지방 지주로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폐쇄적인 삶을 산다. 사일러스는 랜턴 야드에서의 체험 -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변동과 계층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사회구조 - 을 자신의 생활 속에 구현한다. 또한 성실과 근면,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공동체에 복귀하여 타인과의 개방적 관계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 사일러스의 인간성과 자아를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 엘리엇의 개인과 사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

엘리엇은 『사일러스 마너』에서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유기적 삶,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의존성과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일러스의 사회복귀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유기적 공동사회를 향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표현하였다. 『사일러스 마너』는 환경과 계층, 그 속에서 변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성의 변모를 표현한 작품으로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19세기 영국사회의 계층적인 모습을 반영한 사회학적 경향이 강한 작품이다.

목 차

I. 서론	1
II. 19세기 영국 사회의 계층구조.....	5
III. 인간관계의 개방성과 폐쇄성.....	10
IV. 과거의 재생과 단절.....	35
V. 결론.....	49
Bibliography	52
Abstract	55

I. 서론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1819~1880)은 자신이 살았던 산업혁명기의 급변하는 영국 사회를 구도자적인 안목으로 통찰하고자 하였다.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복잡다단한 역동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고 시대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며 작가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전환기의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고민했던 그녀는 영국사회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사회계층적 성격과 개인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엘리엇은 작품 속에서 과거를 감상적으로 그리거나 현재를 이상화하지 않았다. 빅토리아(Victoria)조 영국 사회의 여러 계층과 관계를 맺고 고뇌어린 종교적 편력을 거쳤던 작가답게 그녀의 작품세계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들을 보여준다. 당시 영국의 사회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작품을 다수 창작한 작가이기도 하다. 그녀의 문학세계에 풍부하게 나타난 시대상과 사회상은 그녀의 풍부한 개인적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워릭셔(Warwickshire)주의 작은 농가에서 소박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런던으로 진출한 후 당대의 선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사상적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 1851년 런던에서 진보적인 평론지 「웨스트민스터 리뷰」(*Westminster Review*)의 부편집장이 되어 문인, 철학자, 과학자들과 교류를 넓혀간다. 이러한 경험은 엘리엇으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 속에 다양한 계층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 계층이나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으며, 소설에서는 사회계층적 갈등을 상당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다루며 근대사회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간파할 수 있었다. 엘리엇은 19세기의 사회상, 즉 도시와 시골의 관계, 봉건적 분위기에 젖은 지주와 농민, 상인, 은행가들의 상호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세계를 보여주었고, 도시와 농촌, 상공업, 각종 장인들의 세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들의 직업에 맞추어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엘리엇은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 관계를 면밀하게 고찰하였고 현대사회에

서 전적으로 자율적이고 고립된 개인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주인공의 성격 설정 배경으로써 사회구조와 사회변동 과정을 중요시하였으며 사회변동 상황에서 변화하는 새로운 인간관을 모색하였다. 작품의 등장인물은 자신이 처한 시대에서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고 계층별로 인간관계와 사회에 대한 반응 양상이 다르며, 사회 환경이 등장인물의 성격과 존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엘리엇이 살았던 시기는 영국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본격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후기 자본주의적 속성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격변과 동요의 시기와 일치한다. 산업혁명 기간에 새로운 과학 지식이 가능케 한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은 생산량의 급증과 산업의 기업화를 촉진시켰다. 효율적인 기계의 발명은 일의 전문성을 요구했고, 신형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우대를 받게 되면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자본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전에 봉건귀족에게만 있던 많은 특권들이 사라지고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등장한 신흥 중산계층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을 하였다. 자본을 갖춘 중간계층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며 정치 권력이 토착 귀족 계급의 손을 떠나 완만하고 단계적으로 중간계층으로 넘어왔다.¹⁾ 엘리엇은 산업사회 속에서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자본주의 하에서 사라져가는 소생산자층을 즐겨 그려서 당시 영국 사회의 상층민과 하층민의 생활 방식과 사고의 차이를 표현했다.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엘리엇이 이전 시기의 제인 오스틴(Jane Austen)과 달리 귀족이나 지주 계급이 아닌 농부나 장인 같은 보통 사람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했다고 하였다.²⁾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인식과 선각자적 의식으로 당시 시대를 조명했으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중산계층의 삶을 작품 속에 표현함으로써 다가올 시대를 예견하였다.

계층간의 특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사회계층적 차이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작용하는 양상은 엘리엇이 작품 속에 투영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이었고 이는

1) Richard D. Altick,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3), p. 27.

2) Raymond Williams,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Paladin, 1975), p. 204.

주인공의 도덕적 동기 정당화와 세밀한 심리과정의 묘사에 열의를 보였던 작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보게 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생활배경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중시했던 엘리엇은 자신의 작품 속에 다양한 사회 계층적 특성을 서술하였다. 그녀의 최초의 본격 장편소설 『에덤 비드』(*Adam Bede*, 1859)는 상류계층과 노동계층의 생활이 여러 측면에서 상호 관련을 맺는 양상을 표현했다. 하층민 여인을 유혹하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농장 관리를 위해서는 노동자인 남성을 정중하게 대하는 이중적이고 부도덕한 젠트리계층을 통해 지주계층의 몰락 양상을 표현하였다. 엘리엇의 반 자서전적인 소설로 알려진 『플로스강의 물방앗간』(*The Mill on the Floss*, 1859)에는 다양한 계층의 생활이 나오는데, 젠트맨 계층 출신, 은퇴한 양털상인, 새로운 산업자본주의의 세계에서 자본가로 급성장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소작농 가족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소작농 집안의 파산을 통해 자본주의적 관계가 농촌 마을에 전면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중하층의 신분에서 몰락해 가는 소작농의 딸이 계층 분해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황한다. 『미들마치』(*Middlemarch*, 1871-1872)는 1차 선거법 개정안(the First Reform Bill, 1832) 즈음 소규모 견직물 직조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지방도시에서 정치적 전환기의 시대적 변혁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인이 그 환경에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을 추적한 작품이다. 제조업자, 중간계층인 의사, 보수적인 젠트리계층, 노동계층 등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대 시대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탐색하였다.

『사일러스 마너』(*Silas Marner*, 1861)의 시대적 배경은 18세기 말에서 1832년 선거법 개정을 전후한 시기로 계층간의 갈등과 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이다. 1832년의 선거법 개정은 지주계층과 중간계층의 연합에서 중간계층의 우위가 결정된 계기이며 중간계층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³⁾ 이러한 격동의 시기와는 동떨어진 폐쇄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래블로(Raveloe) 마을은 중간계층의 대약진이 이루어지는 공업도시의 계층이동, 사회변동과 거리가 먼 지역으로 지방지주의 권위가 막강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촌사회이

3) Richard D. Altick, pp. 88-89.

다. 래블로에 오기 전에 주인공 사일러스(Silas)가 살았던 랜턴 야드(Lantern Yard)는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화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근대 공업도시이며 사회개방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이다. 사일러스는 산업도시 랜턴 야드에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중간계층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며 계층 이동과 사회변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을 인지하고 체험한 상태였다.

래블로의 의사, 바퀴수리공, 술집 주인, 재단사, 지주계층, 소작농, 중간계층인 직조공과 랜턴 야드의 수공업자 장인들이 등장하여 19세기 초 영국 사회의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사일러스의 계층적 성격은 자본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이제 막 가지게 된 대표적인 중간계층이 아닌 자본과 권력을 갖지 못한 뿌떠 부르조아(petit bourgeois)에 속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엘리엇은 중간계층 중에서도 중하에 속하는 직조공 사일러스와 래블로의 상류층인 지주(Squire) 갓프리 캐스(Godfrey Cass)를 통해 각 계층의 생활 모습, 계층간의 소통, 두 인물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19세기 영국사회의 계층구조와 『사일러스 마너』에 나타난 지주계층, 중간계층, 노동계층의 생활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작품의 배경인 19세기 영국사회의 귀족계층, 지주계층, 중간계층, 노동계층에 속하는 부류와 그들의 생활을 고찰할 것이다. 제 III장에서는 중간계층 사일러스와 지주계층 갓프리의 생활상, 의사소통하는 방식과 사람들과 접촉하는 양상을 고찰하여 두 인물의 인간관계에서 개방적인 면과 폐쇄적인 면을 파악하려고 한다. 사일러스가 랜턴 야드에서 명예를 잃고, 인간과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래블로에서 고립되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다가 공동체로 복귀하는 모습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것이다. 제 IV장에서는 둘 다 유쾌하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일러스와 갓프리가 과거 회상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과거를 현재와 미래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여 재생시키는지, 과거의 의미를 현재 및 미래의 삶 속에서 확대시키는지 연구할 것이다.

II. 19세기 영국 사회의 계층구조

19세기의 산업화 현상으로 인하여 영국 사회는 활발한 계층이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인간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전 시기에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것이며, 따라서 수직적인 계급 형태로 인간의 등급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세기에 산업사회의 가속적인 발전은 이전 시기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부와 권력의 분배에 근거한 사회적 갈등 관계로 인간을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대립적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을 만들어냈다. 윌리엄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많은 단어들(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비로소 산업화와 관련된 새롭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산업’(industry)과 ‘계층’(class)이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에 대한 사고의 특징적인 방식의 일반적인 변화를 지시하는 뜻으로 바뀐다.⁴⁾

산업혁명 이전에 기술, 근면, 인내, 노력이라는 인간의 특징을 나타냈던 *industry*는 1790년대에 제조업과 생산 제도의 일반적인 활동 즉 산업이라는 뜻으로 특수화되었다. *class*는 약 1740년대부터 사회적인 의미로 쓰였다. 학교나 대학의 반(조)이나 집단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웠던 *class*는 18세기 말에 이르러 사회적인 의미가 강해지며 사회계층이라는 의미로 발전했다. 18세기에 하류계층(*lower classes*)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고 1790년대에 상류계층(*higher classes*), 중관계층(*the middle classes*)과 중류층(*middling classes*)이 생겼고 약 1815년에 노동계층(*the working classes*), 1820년대에는 상류층(*upper classes*), 1890년대에는 중상류계층(*the upper middle classes*)가 생기고 20세기에는 중하류계층(*the lower middle classes*)라는 말이 생겼다. 사회적 의미가 강한 ‘계층’이라는 어휘는 산업혁명을 통과한 영국의 변화한 사회 구조와 사회적인 감정,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의 결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

4)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New York: Penguin Books, 1958), pp. 13-15.

계층'은 유사한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적 기능,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새로운 집단을 일컫게 되었다. 계층의 형성으로 영국사회는 신분사회에서 계층사회로 변화되어 갔다.

계층이란 말과 관련하여 영국 역사학자 톰슨(Thompson)은 계층을 생산양식의 당연한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고정된 구조, 범주가 아니라 어떤 관계, 현상, 흐름으로 파악되는 것이며 계층은 '계층의식'과 분리된 '실체'(thing)라고 생각할 수 없다. 앞의 것은 뒤의 것의 계기가 아니며 또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 계층이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며 그것은 특정한 사회관계 아래에서의 경험들을 통하여 집단적 자의식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톰슨은 주장했다. 계층은 개별적이고 상호 무관하게 보이는 다수의 사건들을 경험이라는 원재료 속에서, 그리고 의식 속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역사적 현상(historical phenomenon)이라고 했다. 인간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강조했다.⁵⁾

19세기 영국 사회의 계층은 귀족계층(the Aristocracy)과 젠트리계층(the Gentry), 중간계층, 노동계층으로 구분된다. 귀족계층은 영국의 전통적인 지배계층으로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세습 작위와 대규모 영지를 소유했으며 주요 수입원은 영지의 지대와 부동산 수입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귀족 가문들이 부동산 개발로 큰 수입을 얻었다. 귀족계층은 노동계층, 즉 '일하는 계층'이 아니며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이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세습되는 영지의 전원주택(country house)이라고 부르는 대저택에 거주하였고 대도시에는 사교계 시즌을 위해 도심주택(town house)을 소유했다.

작위는 없지만 토지를 소유한 젠트리계층은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때로는 하위 귀족계층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귀족계층과 달리 이들은 남작 이상의 작위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귀족가문 만큼 가문의 역사가 길지 않았다. 비록 작위는 없지만, 여러 세대를 거쳐 세습되는 영지와 저택을 소유했고 주요 수입원은 소유지의 지대와 부동산 수입이었다. 귀족과 마찬가지로 젠

5) 안병직 외,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층』 (서울: 까치, 1977), p. 50.

트리계층도 직접 농사를 짓는 등의 ‘생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관념을 철저히 무시했다. 19세기 초중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젠트리계층의 정치경제적 힘은 점점 축소되었다. 귀족, 젠트리 그리고 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류계층은 19세기 무렵 영국 인구의 2% 가량을 차지했다.

중간계층은 주로 전문직과 상공업에 종사했다. 중세시대 때는 땅의 소유 여부가 상류층의 주요 요건이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 못한 중간계층은 귀족과 젠트리계층에 의해 천시되었었다. 땅의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중간계층은 상류층과 구별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중간계층의 정치경제적 힘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영국의 지배계층이 되었다.

중간계층의 수입원은 상업과 공업 그리고 전문직종에 의한 수입이며 동산, 부동산 투자도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중간계층은 사교계 시즌에만 도시에 거주했던 귀족, 젠트리계층과 달리 항상 대도시에 거주하기를 선호했다. 중간계층이 성장해 감에 따라, 그 내부에서도 계층적 구분이 생겨났는데, 의학과 법학, 학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중상류계층이 출현하였고 이들 중상류계층에 상공업자는 보통 배제되었다. 자영 상공업 종사자, 수공업자 장인, 소시민 계층은 때때 부르조아(중하류계층)라고 칭해졌으며 중간계층 중에서 중하에 해당되었다. 중간계층은 소규모 자영업자, 교사에서부터 대재벌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내부의 경제적 격차가 상당했다. 봉건적 상류층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이들은 어느 정도 계층적 동질감을 갖고 있었으며 19세기 영국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했다. 범위가 확대되며 규모와 영향력에서 19세기 가장 중요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여 당시 영국의 사회규범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간계층이 강조한 가정적임(domesticity)이 주요 덕목으로 추앙되며 가정생활이 새로운 모습을 띄게 되었고, 다른 계층에 영향을 주며 사회 전체의 문화가 바뀌게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인구의 80~85% 가량을 차지한 노동계층은 중간계층

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었고 산업혁명의 혜택으로부터 가장 많이 소외된 계층이었다. 공장, 광산, 소작농 등의 직업에 종사했고 산업현장의 사정과 시장경제의 변화에 좌우되는 생활을 했다. 노동계층 내에도 계층적 구분이 있었는데, 실업자, 미숙련 노동자 등은 하류층(the under classes)이라고도 하여, 극심한 생활고 속에 살았다.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중간계층의 대약진이 이루어진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로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의 장인들과 일부 농민들이 도시의 소상인으로 성장하고 제조업자들이 되면서 중산계층의 일원으로 편입된다.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 사회가 지배층과 피지배층만의 세계로 구분되는 수직적 불평등의 위계제 사회였다면 19세기 산업사회는 귀족 및 대지주 지배계급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봉건체제에서 본격적으로 탈피하기 시작한 계층사회(class society)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⁶⁾ 경제체제의 변동에 따라 권력구조의 밑에 숨어 있던 계층의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중간계층과 노동계층이 사회적인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는 변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과 전문 기술인의 중간계층은 경제적으로 자본의 축적과 독립이 가능하였고, 자신의 이상을 구현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분야에서 귀족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었다.

중간계층은 상인, 자영농, 전문직, 금융가,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은 아니었고 위로는 귀족과 아래로는 하층민과 중복되어 있었다. 귀족적 중간계층인 상인과 은행업에 종사하는 전통적 부르조아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지주층의 생활습관을 지향했으며, 돈을 벌어 토지를 획득했고 사립학교와 대학에서의 경험을 지주층과 공유했다. 귀족 지주계층의 일하는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상류층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그들의 생활을 모방했다. 도시와 시골에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구호 활동과 자선사업을 하며,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식별력을 발휘하는 등 부와 교양을 겸비한 신사로 행세할 수 있었으며 국회와 정부에도 관여할 재력을

6) H. Perkin,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9), p. 34.

소유하고 있었다. 여가 시간에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돈을 쓰는 상업화를 주도했고 기존 엘리트 문화의 대중화와 확대를 모색했다.

노동계층은 노동조합이나 여타 수단을 통하여 노동계층의 힘을 구성하고 중간계층과 귀족계층에서 독립하여 다수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상위 두 계층을 좌우하려 했고 폭력적이고 미숙했으며 다수의 힘으로 다른 계층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숙련공 중심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한 일련의 합법적인 개혁을 이끌어 냈다. 1830년대와 40년대는 전시대에 본격화된 급격한 산업화가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의회와 정치비평가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 당국은 1834년에 공장법(the Factory Act)과 개정빈민법(the Poor Law Amendment Act)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였고 노동계층의 개혁 요구는 차티즘(Chartism)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영국의 공업도시에 거주하는 중간계층 중에 감리교(Methodism) 신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노동계층에게 노동을 신성시 여기도록 했고 절주, 검약, 근면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체통(respectability)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퍼뜨렸다. 또한 중간계층은 자조(self-help)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설교함으로써 사회의 정신적·도덕적 진보를 이룩해야 한다는 열망을 나타냈다. 중간계층은 자조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부의 축적과 성공을 정당화했고 노동자들에게 자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성경을 공부하고 철학, 신학, 과학, 경제학에 상당한 지식을 쌓는 자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⁷⁾ 감리교가 대두하고 성장한 시기는 1780년대 무렵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840년대 철도 및 대규모 중공업 건설로 끝나는 산업혁명기간과 일치한다.

7) Richard D. Altick, pp. 170-171.

Ⅲ. 인간관계에서의 개방성과 폐쇄성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까지 영국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와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의해 신분적 위계제 사회로부터 재력에 의한 계층사회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기술과 재능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축적된 재산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중간계층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발전 욕구가 강해지며 더더욱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정진한다. 지주와 달리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살아가며 재산을 축적하여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중간계층에게 개방적인 인간관계를 도모하도록 한다. 북부의 신흥공업도시 랜턴 야드는 수공업자 장인이 많은 곳으로 사회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곳이며 사일러스는 랜턴 야드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체험하여 각인이 된 상태이며 자신의 생활 속에 실천한다. 보수적이며 사회변동 양상에 무지한 지주계층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며 기존의 재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관계가 없어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신분과 재산을 유지하고 사회의 지배층으로 남기 위하여 폐쇄적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래블로의 지주 아들 갓프리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지주라는 계층을 유지하여 지배층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관계를 모색하지 않고 폐쇄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한다.

『사일러스 마니』의 배경인 랜턴 야드와 래블로 두 지역의 주요 산업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통해서 산업화의 정도 차이가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지배계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할 수 있다. 사일러스의 고향 랜턴 야드는 산업혁명의 신흥 공업도시이며 사일러스처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장인이 많은 지역이다. 숙련된 장인들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으로 재산을 축적하여 부르조아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축적된 재산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일러스는 산업화가 가져온 사회계층구조 변화양상을 이미 체득했고 돈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래블로 마을로 옮겨오게 된다. 사회변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랜턴 야드에서 사일러스는 시대의 변화를 이

미 인지하고 체험했으며 재산을 축적하여 사회의 중간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롬 테일(Jerome Thale)은 작가 엘리엇이 『사일러스 마너』에서 랜턴 야드의 묘사를 통해 19세기 산업화의 발흥을 정밀하고 통찰력있게 드러냈다고 하였다.⁸⁾

사일러스는 랜턴 야드에서 공업도시의 역동적 사회 속에서 직조공이라는 직업에도 충실하고 당시 공업도시에 널리 퍼져있던 감리교라는 종교생활에도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타인과의 적극적인이며 개방적인 관계를 맺는다. 18세기 후반에 설교가요 종교개혁가인 존 웨슬리가 주도한 감리교운동은 교회 내의 계급 체계에 반대하였고, 감리교도들은 권위는 성직자나 주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확신에 있다고 믿었으며 그들에게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었다. 감리교도들은 광신도로 분류되었는데 조잡한 종교적 방식을 따르고, 야외 설교자를 추종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따랐으며 집회(convention)에 참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고유의 예배당(chapel)을 갖고 있었다.⁹⁾ 랜턴 야드에서 사일러스는 독실한 감리교도로서 신앙생활에 정진하여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에서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었고, 인간애가 넘치는 모범적인 청년이었다.

래블로에 오기 이전의 그의 생활은 활발한 육체적 운동, 정신적 활동, 그리고 깊은 우정에 가득 찼었다. 이러한 기질들은 이 장인으로 하여금 일찍부터 엄한 종교단체에 가입하도록 만들었다. 그가 가담한 종교사회에선 가난한 보통 신도일지라도 구변이 좋으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적어도 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말없이 투표할 자격이 있었다. 마너는 랜턴 야드의 교회회합(the church assembling)이라고 알려진 조그만 숨은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간주됐다. 사람들은 그를 모범적이며 신앙심이 두터운 청년이라고 믿었다.¹⁰⁾

8) Jerome Thale, *The Novel of George Eliot* (New York &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 95.

9) Richard D. Altick, pp. 31-32.

10) George Eliot, *Silas Marner* ed. Young-Moo Kim (Seoul: Shinasa, 1997), p. 40. 이후부터는 괄호 안에 페이지만 표시하겠음.

산업화와 도시화, 사회변동 상황을 인식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일러스는 성격이 단순하다. 신은 항상 공정하며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일러스는 정직하고 남을 잘 믿는 성격 때문에 절친하다고 믿었던 친구 윌리엄(William)에게 배신당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을 자행하는 윌리엄은 종교단체에서 모범적인 신도로 인정받는 사일러스를 질투하고 모함하여 그를 도둑으로 몰아 고향을 떠나게 하고 그의 약혼녀를 가로챈다. 친구의 배신과 신과 여인에게서 버림받은 사일러스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잃게 된다. 또한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을 포기해야만 하고 공동체의 유대감과 인간적인 감정과 기본적인 애정을 상실하게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칼을 쓴 것은 너[윌리엄]에게 가죽 끈을 끊어 주려고 했을 때야. 분명히 난 그 칼을 내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지 않았어. 네가 그 돈을 훔쳤지? 그리고 죄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연극을 꾸민 거야. 하지만 이런 짓을 한 너는 잘 살게 될 게다.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결백한 자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의 신이 있을 뿐이야.” (47-48)

랜턴 야드에서 사일러스가 참여한 종교는 영국 국교와 달리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했다. 은총과 섭리 개념을 엄격히 따르고 원죄와 예정선택설을 강조하고 인간은 신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면서 성서의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했다. 훗날 래블로에서 사일러스가 자신이 살던 랜턴 야드에 ‘교회’(church)는 많았으나 가본 적이 없고 자신은 단지 예배당에 다녔다고 말했을 때 선량한 돌리 윈드롭(Dolly Winthrop)은 매우 놀란다. 돌리는 시골 교구에 사는 국교도이기 때문에 사일러스가 말하는 예배당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일러스는 특별히 마을 공동체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예배당에 참가하는 교육을 받았지만 그곳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제비뽑기로 판결하는 구약성서의 판결을 그대로 행하는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사회였다.¹¹⁾ 산업화 되어가는

랜턴 야드에서는 극단의 교리적 형식을 따르고 삭막한 인간관계가 있을 따름이다. 당연히 사일러스는 개인적인 연대 의식이 없는 랜턴 야드에서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었다. 또한 믿었던 친구 윌리엄의 배신은 사일러스를 15년 동안 인간과 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삶의 목표를 왜곡시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일러스는 처음에 래블로 마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폐쇄적인 면을 보인다. 개방적인 중산층 인간이 한때 폐쇄적으로 살아야 했던 모습은 그의 개방적 성격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윤리에 의해 삶이 폐쇄적으로 되어버렸음을 의미한다.

공업도시 랜턴 야드가 사회변동의 양상과 청교도의 엄격한 종교생활이 나타나되는 곳이라면 사일러스가 절도 혐의로 고향에서 쫓겨나 살게 되는 래블로 마을은 시대의 흐름과 거리가 먼 시골로 과거로부터 전해진 계층과 풍습,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닌 곳이다. 사회 상황과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사회변동과 거리가 먼 래블로 마을은 영국 중부의 기름진 지역에 위치하였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이다. 19세기 초는 전반적인 불황기였고 물가의 폭락으로 소지주나 자작농이 몰락하였지만 18세기 말에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 특수로 래블로 같은 지방 교구의 지주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시대 상황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지방지주의 세력이 건재한 농촌마을 래블로와 숙련된 장인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재능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중간계층으로 약진할 수 있는 공업도시 랜턴 야드를 통하여 산업화의 정도 차이와 두 곳의 생활상, 계층양상을 파악하게 된다. 래블로는 시골 특유의 배타적인 습성을 지녔으며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이방인과 도시에서 이사온 사람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손재주를 지녔거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이상한 마력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마을이다.

모두가 잘 아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정직한 마을 사람들은, 거의 지

11) George R. Creeger, ed. *George Elio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 J.: Prentice Hall, 1986), p. 62.

나치게 현명하거나 똑똑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날씨를 예측하는 것 이상의 재주는 없었다. 어떤 재빠르고 교묘한 재주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마술의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흩어진 리넨 직조공들-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소박한 시골 사람들에게서 죽을 때까지 이방인 대접을 받았으며, 결국은 고독 때문에 괴상한 습관이 붙었다. (32-33)

래블로는 좁은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인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면을 지닌 곳으로 외부인을 경계하는 비개방적인 면도 있지만 순박한 면이 있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마을이다. 래블로가 도시의 사회계층이동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식의 농촌마을이라면 랜턴 야드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중간계층의 약진이 이루어지는 공업도시로 19세기 영국 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며 활발한 사회변동 현상을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랜턴 야드에서 사일러스는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기도 없이는 효험이 없고, 약초를 쓰지 않고도 기도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합리적인 사고와 원숙한 이성에 근거하지 않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무모한 신앙과 단순한 성격으로 인하여 사일러스는 제비뽑기라는 형식으로 죄인을 가리려는 랜턴 야드의 종교적 처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판단하지 못했고 진실을 꿰뚫어보지 못하였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그만큼 순수하고 단순한 상태였다.

마녀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이라면 제비뽑기에 의해 신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자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일러스에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독립적인 사고를 해보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의 죄 뿐 아니라 그들의 슬픔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생겨난 슬픔이 얼마나 많고 깊은지 알 것이다. (48)

무지한 청교도인들로부터 진실을 거부당하고 광신에 가까운 신앙으로부터 배신당함으로써 사일러스는 삶의 모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뇌플마허(U.C. Knoepflmacher)에 따르면 사일러스가 믿었던 신과 인간으로부터의 배신은 사일러스의 가치관이 위협을 당한 것이며 그 위협으로 인하여 사일러스가 삶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과 세계가 대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립을 통해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외부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 법칙의 냉혹함에 압도되어 세계와 인간 전체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좌절하여 소외되기도 한다.¹²⁾ 사일러스는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며 정신적인 지주를 잃고 상처받은 자아를 가둬두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부정한다.

신을 부정하게 되고 랜턴 야드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못한 채 사일러스는 랜턴 야드를 떠나 래블로 마을로 들어오게 된다. 래블로는 19세기 초의 영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합된 좁은 마을이다. 기독교 의식을 따르고 세례를 하며 안식일을 준수하는 곳이지만 랜턴 야드처럼 엄격한 종교적 질서를 요구하지 않는 래블로의 종교는 국교회이고, 마을 사람들은 종교를 사회 조직의 일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엄격한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다지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다. 그리고 달력에 나와 있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타나는 것은 하느님에게 잘 보여서 부당하게도 자기 이웃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탐욕스러운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나아지겠다는 욕심이고, 그래서 자기네와 마찬가지로 대부와 대모가 있고 장례미사를 받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은근히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158)

래블로는 전통적인 지역사회로 산업혁명과 청교도적 열광이라는 시대 사조

12) U.C. Knoepflmacher, *George Eliot's Early Novel: The Limits of Realism*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 68.

와 거리가 먼 비교적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조용한 세계이다. 전설적이고 전원적이며 협동적인 이상향으로 묘사되고 있고, 자족적 사회(self-contained community)이며 신비와 미신이 삶의 방식의 일부를 이루고 과거와 밀접한 관계를 보존하는 곳이다. 중부의 평야지대에 위치하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영국’(Merry England)라고 부르며 선망하는 공동체 사회이다.

그런데 래블로는 새 시대의 소리에 몰들지 않고 많은 옛 풍설이 어러 있는 마을이었다. 그렇다고 말라빠진 양이나 몇몇 목동들이 사는 문명의 변두리에 있는 황폐한 교구라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기 좋은 영국’이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크게 선망되는 십분의 일 세금을 내고 있는 밭을 가진 기름진 중앙평야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관문에서든지 말을 타고도 한 시간 쯤 걸리는 숲이 우거진 골짜기에 아늑하게 안긴 마을이었다. 그래서 합승마차의 나팔소리나 세상의 여론이 들리지 않았다. (35)

래블로의 캐스(Cass), 오즈굿(Osgood), 래미터(Lammeter) 집안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계층으로 상층민에 속한다. 목사, 의사, 재단사, 마퀴제조공으로 구성된 중간계층, 농민과 주로 캐스 집안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인으로 이루어진 노동계층의 사회로 이루어졌다. 래블로의 영농법은 구식이어서 소작인들은 가난하지만 전시 중 물가의 등귀 때문에 지주들은 사치스러운 향연을 즐기며 살아간다. 당시 지방지주들은 나폴레옹 전쟁 중에 곡물가를 상승시켜 농업경제를 어렵게 해놓고도 크리스마스, 성령 강림제, 부활제를 호화롭게 보낼 수 있었다. 래블로는 상층민과 하층민 사이에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로 술집 레인보우(Rainbow)에서 술을 마시는 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같은 술집 안에서도 신분에 따라 작업복을 입은 농부들은 부엌방에서 맥주를 마시고 상층민들은 난로가 있는 객실에서 고급술을 마신다.

송년 파티가 열리는 캐스 가(Cass family)의 저택 레드 하우스(Red House)의 응접실로 통하는 문에서도 상층민과 하층민의 구별을 볼 수 있다. 교회에서 앉는 자리와 주일미사가 끝난 후에 나오는 순서에도 신분의 차이가 적

용된다. 상층민인 캐스 집안과 오즈굿 집안은 호화스러운 파티를 자주 열고 그 중에 캐스 집안의 가정은 노동자들의 일주일 식량에 해당하는 고기를 개에게 줄 정도로 부유하다. 중간계층의 식생활을 보면 금화를 잃어버려 상심한 사일러스를 위로하기 위하여 바퀴 제조공의 아내 돌리 윈드롭은 가난한 사람들이 선물하는 라드 케익(lard cake)을 가져간다.

랜턴 야드에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던 사일러스는 친구의 배신과 자신이 믿었던 신앙으로부터 외면받은 충격으로 래블로에서 고의적으로 고립되며 폐쇄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일러스가 래블로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배운 약물로 샬리 오우츠(Sally Oates)를 치료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와 교류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거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처음에 일시적인 형제애를 느꼈던 샬리 오우츠에 대한 연민은 이웃에 대한 혐오감으로 고조된다. 이 사건으로 더욱 자기만의 세계에 칩거하며 고의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거부한 채 폐쇄적으로 살아간다.

신앙의 빛도 완전히 사라지고, 애정도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는 일과 돈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사람이 자신을 헌신하는 모든 목적처럼,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모든 열정을 다하듯이. (54)

고립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짜는 일에 전념하여 금화를 모으는 일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부지런히 일에만 매달린다. 세상에 대한 원망에 차 있는 그에게 일만이 유일한 진통제이며, 황금빛 금화가 그의 유일한 신이다. 랜턴 야드에서는 돈을 예배당에 바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 목표가 사라지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랜턴 야드에서 재산을 축적한 중간계층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던 모습을 목도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현재 삶의 기반이 부족한 사일러스에게는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인생의 이유가 된 것이다.

고향에서 추구했던 인간관계 즉 결혼, 사랑, 사람들과의 교류, 우정, 종교를 외면한 채 거미처럼 베틀을 돌려 짠 리넨으로 돈을 모으며 행복해한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짠 리넨을 팔고 돈을 받을 때 뿐이었다. 리넨을 사는 사람들은 지주계층인 낸시(Nancy)의 언니 프리실라(Priscilla)에서 이웃 마을의 아낙 등 상류층에서 하층민까지 다양했지만 사일러스는 그 어느 누구와도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과 돈에 관련된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며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한다.

그는 절대로 대문 안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법이 없었고, 읍내로 나와서 무지개 술집에서 한잔하거나, 바퀴제조공 집에 모여서 잡담하는 데 끼는 일도 없었다. 자기 직업상의 용무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이외에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55-56)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진 외딴집에서 살며, 마을 남자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술을 마시며 갖가지 소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레인보우 술집에 간 적도 없고 바퀴제조공 집에 모여 잡담하는 데 끼는 일도 없이 거미처럼 혼자 밤늦도록 천을 짜기만 한다. 스스로 소외되어 가는 사일러스가 마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은 이유는 지독한 근시의 푹 붙어진 눈과 창백한 혈색이 호기심을 자아낸 점, 부잣집 아낙들이 애용하는 질 좋은 직물을 짜내는 성실한 직조공이기 때문이다.

고립하여 살아가는 사일러스에게 유일한 기쁨은 직물을 팔아서 얻은 금화가 쌓이는 일이며 돈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금화 자체가 목적이 된다. 하루 일을 끝내고 깊은 밤에 모아둔 금화를 어루만지며 환희를 느끼며 인간이나 신에 대한 믿음 없이 소외된 생활을 하면서 차츰 그가 매달려 일하는 벼를 닦아간다.

이와 같이 몇 해 동안을 사일러스 마너는 고독 속에 살아왔다. 그의 금화는 쇠항아리에 가득 찼고 그의 생활은 점점 다른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욕망과 충족의 고동 속으로 돌아들고 굳어갔다. 그의 생활은 오로지 짜는 것과 모으는 것에 국한되어서, 그러한 기능이 향하는 목적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더 현명한 사람이라도 신앙

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단지 그 경우에는 베틀이나 금화 더미 대신에 어떤 박학한 연구나 발명의 계획, 혹은 잘 구성된 이론이 그런 기능을 하겠지만 말이다. 이상하게도 마너의 얼굴과 몸은 오그라들고 구부러져서, 그의 생활 목적에 영원한 기계적인 관계를 맺은 듯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 없는 베틀의 손잡이나 구부러진 관 같은 인상을 주었다. (59)

마너의 이러한 모습은 삶의 터전인 사회에서 이탈하여 고립된 자족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뿌리뽑힌 나무가 시들고 말라 죽는 것과 같음을 알게 한다. 사회에서 유리된 마너는 인간적인 관계를 거부한 채 폐쇄적인 삶을 살며 비생명적인 물체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15년 동안 스스로 소외되어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폐쇄적으로 살아가던 사일러스가 개방적인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에 봉착하게 된다.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는 사건에 대면하게 된 것이다. 래블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모았던 금화를 잃어버렸을 때 도움을 요청하러 술집 레인보우를 찾아간다. 이 행동은 그가 폐쇄적 관계에서 개방적 관계로 전환하게 되는 뜻깊은 출발이다.¹³⁾ 레인보우 술집은 축소된 래블로 지역사회를 상징하며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래블로 사회의 구성원, 사회구조, 사회계층 관계와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레인보우는 지주 아들에서부터 수의사, 재단사이며 교회 집사, 목수, 바퀴 제조공, 백정, 대리 집사에 이르기까지 젠트리계층, 중간계층, 노동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각자 자신이 속한 계층의 언어로 대화하고 자신의 생활 감정을 사투리로 말하는 마을 남자들의 사교 공간이다. 철저한 중용주의자인 술집 주인 스넬(Mr. Snell), 래블로의 전설과 온갖 내력에 얽힌 사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야기꾼인 교구 집사이며 양복점 주인 메이시(Mr. Macey), 결코 정곡을 찌르는 법이 없이 언제나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유쾌한 푸줏간 주인 밥

13) U.C. Knoepfelmacher, p. 237.

(Bob Lundy), 남의 의견에 언제나 반대하는 부정적인 성격의 의사 다운러스(Mr. Dowlas), 바퀴수선공 윈드롭(Mr. Winthrop), 집사 보조이며 사람들의 놀림감인 투키(Mr. Tookey) 등 레인보우에 모이는 다채로운 성격의 인물들이 기분 좋고 유쾌한 대화를 나눈다. 이들에게서 사회계층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다운러스는 붉은 더러움 종자 소를 산 밥에게 계속해서 그 소는 가짜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밥은 개의치 않는다. 자신이 래블로에서 음악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교회 성가대의 리더인 윈드롭은 같은 성가대원 투키를 실력이 없다고 신랄하게 비난한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에 대해 아는 게 없는 다운러스는 윈드롭, 투키 다 옳다는 스넬의 중용적인 사고를 무시하는데 정작 그 자신은 의사이데다 병든 소를 치료해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 윈드롭, 투키, 다운러스의 이러한 모습은 종교를 사회 조직의 일부로 생각하고 엄격하지 않은 비교적 유연한 래블로의 종교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술집 안의 사람들을 여유있게 바라보고 그들을 혼수하기도 하며 집안 대대로 전해져 오는 재단사라는 자신의 직업과 재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메이시의 모습에서 중간계층의 강인한 생활력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¹⁴⁾ 재산이 많이 소유한 메이시와 수의사는 래블로에서 중간계층 중에서도 비교적 상위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둘은 대리 집사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데, 메이시는 캐스 집안의 송년 파티에 주요 인물로 초대받는 인물이고 의사 다운러스도 마을에서 지위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점에서 그런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생생하고 실감나는 표현이 가능한 것은 작가 엘리엇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연유한 것인데, 엘리엇의 아버지는 대지주의 토지 관리인(an estate agent)으로 중간계층에 속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했다. 가족들이 농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지주계층과도 가깝게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엘리엇은 술집 레인보우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그 계층의 언어로 대

14) Q.D. Leavis, "Silas Marner," *Collected Essays volume 1: The Englishness of the English Novel*, ed. G. Sing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 286.

화하고, 고유의 행동과 생활 감정을 그 지방의 풍부한 사투리로 꾸밈없이 표현할 수 있었다.

사일러스가 레인보우를 찾아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인간다운 삶의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의미있는 출발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폐쇄적인 태도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사일러스의 금화 도난 사건을 알았을 때 레인보우 술집에 있던 사람들의 대응하고 대처하는 자세에 직업적인 속성과 계층적 특성, 개성이 표출된다.

다울러스가 수의사라는 직업적 권위를 내세우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하자 법률을 아는 메이시는 의사가 경찰이 될 수 없다고 하며 다울러스를 몰아세우는데 술집 주인 스넬의 조정으로 다울러스는 부수적 인물로 금화 도난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사일러스의 집에 가게 된다. 원칙적인 교구 집사 메이시와 수의사라는 직업으로 경찰 임무까지 수행하려는 수의사의 모습은 서로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직업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사일러스가 돈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에 가슴아파하며 찾으려고 도와주는 모습에 사일러스는 사람들의 호의와 애정으로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다음의 인용은 엘리엇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나무’와 ‘수액’의 관계로 비유한 것으로, 조지 레빈(George Levine)은 사일러스와 공동체와의 따뜻한 연결을 ‘수액이 돌듯이’(many circulations of the sap)라고 표현하여서 공동체와 개인의 유기체적 관계를 드러낸다고 평가하였다.¹⁵⁾ 금화를 잃어버려 충격을 받았지만 레인보우에서 불을 쪼며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으며 얼었던 그의 마음이 차츰 풀리기 시작한다.

자기가 당한 재난을 래블로의 이웃들에게 털어놓고 자기집 난로가 아닌 불에 몸을 쪼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듯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 이상하고도 신기한 환경이, 자기의 재산에 심한 충격을 받은 그였지만, 확실히 그에게 이상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15) George Levine, "Determinism and Responsibility," *A Century of George Eliot Criticism*, ed. Gordon S. Haight (Boston: Houghton, 1965), p. 351.

사물의 싹트는 때를 일일이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나무에 움튼 것을 알아보기 전에 벌써 수액은 그곳을 여러번 순환했을 것이다. (122)

무의식적이지만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아인식 과정을 거치며 굳게 닫혔던 자아의 문이 열리며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사일러스의 마음이 바뀌어 간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며 일종의 가벼운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들의 선의에 의지하고 싶어한다. 굳게 닫힌 껍질처럼 철저히 고립된 존재에서 차츰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하는 개방적 심정으로 전환한다.

예전에 그의 마음은 안쪽에 보물을 담아놓은 잠겨진 껍질이었지만, 지금 그 껍질은 비었고 자물쇠는 부셔졌다. 자신의 지주를 상실한 채 어둠 속을 더듬거려야 하는 처지가 되고 보니 불가피하게 만일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자기에게 뻗쳐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외부에서일 거라는, 막연하고 반쯤은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웃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약하게나마 기대감이 꿈틀거렸고 그들의 선의에 의지하려는 희미한 의식이 생기고 있었다. (127)

사일러스는 이처럼 고립된 내부가 아니라 외부세계인 래블로라는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통해서 인간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다. 사일러스와 레인보우 술집과의 접촉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면을 주목하여서 뇌플마허는 무지개는 ‘구원의 징표’(a sign of redemption)라고 하였다.¹⁶⁾ 젊은 시절 랜턴 야드에서의 절망은 사일러스를 사회로터의 고립과 좌절을 주었지만, 금화를 도난당한 절망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를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한다.

금화 도난 사건 후 양복점 주인인 메이시 집사가 싼 값으로 좋은 옷을 지어줄 터이니 주일 예배 때 입고 나갈 옷을 맞추라고 권고하며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사람들과 사귀라고 설득한다. 이웃 여인 돌리는 특별히 만든 과자와 음식물을 들고 찾아와서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열려고 시도한다. 래블로 사람들의

16) U.C. Knoepfelmacher, p. 236.

호의와 도움으로 사일러스는 차츰 마을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게 된다.

금화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진 사일러스가 결정적으로 공동체와 소통하고 만족감과 자아를 되찾게 되는 계기는 에피(Eppie)를 키우게 되면서이다. 에피를 키우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인생의 희망과 기쁨을 알게 된다. 원래 그의 성향이 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랜턴 야드에서 체험한 중간계층의 역동적인 생활력을 회복하여 적극적인 개방의 관계로 나아간다. 개인과 사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발휘하며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심리가 변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리비스(F.R. Leavis)는 이와 같은 사회학적 상상력에 초점을 맞춰 엘리엇의 위대성을 작중인물의 뛰어난 심리묘사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에서 주로 파악하였다.¹⁷⁾ 사일러스는 에피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개방적인 관계로 나아간다. 이전에 돈을 모으는 데서 느낄 수 없었던 만족감을 얻게 되며 삶의 희망과 기쁨을 인식하게 된다.

사일러스는 이제 래블로의 생활을 모두 에피와 관련시켜 생각하기 시작했다. 에피는 래블로에서 좋다는 것은 다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것에 귀기울였다. 이곳의 생활에서 그는 15년간이나 자기와 관계없는 이상한 것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다. 돈을 모으려고 하는 마음은 오랫동안 모았던 돈이 없어진 바로 그때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에 그가 번 돈은 마치 지진으로 갑자기 파괴된 집을 다시 짓는다고 갖다 놓은 벽돌처럼 어딘지 틀린 것처럼 보였다. 돈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그를 억누르고 있어서, 새로 번 돈을 만질 때마다 전에 느꼈던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돈 모으는 일 대신, 다른 목적이 생겨서 그에게 끊임없이 돈 이상의 희망과 기쁨을 주었다. (240-241)

17) F.R. Leavis, *The Great Tradition: George Eliot, Henry James, Joseph Conrad* (London: Chatto & Windus, 1948), p. 9.

에피는 캐스 집안의 장남인 갓프리과 다른 마을의 술집 여급인 몰리(Molly)와의 비밀결혼에서 태어난 딸이다. 하층민 몰리와의 결혼을 후회하는 갓프리는 낸시에게 마음을 두고 몰리와 자신의 딸을 피한다. 송년 파티가 열리는 그믐날에 술과 아편에 빠진 몰리는 딸과 함께 남편을 찾아가 자신과 아이의 존재를 캐스 집안에 밝히려 하지만, 도중에 쓰러져 죽고 만다. 쓰러진 엄마의 품에서 기어 나온 두 살 된 아이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사일러스의 오두막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일러스는 아이의 발자국을 따라가서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몰리를 발견하고는 지주 캐스의 집 레드 하우스에서 송년파티를 즐기고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다. 파티에서 마음 속으로 연모하는 낸시와 춤을 추던 갓프리는 사일러스가 데려온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알지만 모른 채 외면하고, 사일러스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인간애를 발휘하며 아이를 키우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한다.

지금까지 아무 목적 없이 천을 짜던 사일러스는 이제 에피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된다. 금화는 사일러스를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에피는 그를 세상에 나가게 하여 외부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감각을 되살리고 인간적인 애정을 일깨워주는 원동력이 된다.

돈은 그의 생각을 항상 고정된 공간 속에 방황하게 했고, 그 이상의 목적을 갖도록 자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에피는 변화와 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끊임없이 확대해갔다. 그리고 똑같은 한 장소에서 제자리걸음만 하던 지금까지의 욕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를 끌고 갔다. (232)

에피로 인하여 은총을 받아 다시 태어나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게 되고, 어린 아이를 키우며 자기 자신의 폐쇄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타인의 존재의미를 발견한다. 기계적으로 일만 하던 삶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폐쇄되고 고립된 자아의 벽을 허물고 타인과 교류하는 개방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살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옛날에는 사람의 손을 이끌어 멸망의 마을로부터 구출해내는 천사가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하얀 날개 달린 천사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무서운 멸망의 구렁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이 그들을 조용하고 빛나는 세계로 친절하게 인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뒤를 돌아다보고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그 손은 어린애의 손일지도 모를 일이다. (241)

에피와 사일러스 사이에는 둘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애정이 있었고, 에피와 외부 세계 사이에는 이웃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 이 애정을 통하여 사일러스는 그가 사는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게 되고, 에피를 매개체로 해서 래블로라는 동질적인 공동체에 돌아감으로써 자아와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한다.

훗날 잃어버린 금화와 던스톤의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친부로서 자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갓프리에게 사일러스는 책임지지 않는 권리는 의미가 없으며 진정한 애정에 근거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사일러스는 반항적이고 엄격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나으리, 왜 16년 전 내가 이 애를 사랑하게 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고 이 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에서 심장을 빼앗아가듯 이제 와서 내게서 이 애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 말고요. 당신이 저 애한테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 애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저 애한테 아무 권리가 없어요! 사람이 찾아온 복을 쫓아버리면 그 복은 맞아 주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294)

이제 사일러스는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강인하고 준엄한 사람으로 변하였으며 래블로라는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자아를 되찾은 것이다. 확고한 자아의식을 찾고, 개방적인 관계 속에서 래블로의 구성원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변동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라 인간관계도 개방적 측면을 가지면서 발전하지만 사회변동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발전에서 소외된다. 또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상층민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갓프리는 보수적이며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젠트리계층의 속성을 지녔고 지적으로 그리 뛰어나지 않고, 사회변동 상황에 무지하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하는 인물로 이런 면 때문에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다. 형식과 체면 유지가 중요하고, 도시 생활상을 접해 본 경험 없이 계속해서 세상의 여론이 들리지 않는 시골에서 살아왔고 안락한 생활과 부를 향유하는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사회의 변동 양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점을 지닌 인물이다. 도시의 계층이동 현상과 중간계층의 약진과 지주계층의 몰락, 산업화되는 도시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한다. 과거에 얽매어 새로운 사회 흐름을 읽지 못한 편협한 지방 지주로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폐쇄적인 삶을 산다. 지위와 신분이 높지만 새로운 삶을 창조하지 못하는 수구적이고 소극적이며 위축된 생활을 한다.

갓프리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상층민으로서의 신분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본처인 하층민의 여자와 둘 사이의 아이를 거부한다. 상층민인 자신이 하층민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아버지에게 땅을 물려받아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여 계속해서 기득권층으로 남으려고 한다. 만약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군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생업을 갖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일을 할 능력이나 그럴 의사도 없는 전형적인 젠트리계층이다. 농사를 짓는 등의 ‘생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관념을 철저히 무시하고 직접 농사를 지을 의향도 없는 지주계층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셔틀워드(Shuttleworth)는 갓프리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지주계층의 생활을 묘사한 것이며 낸시(Nancy)의 ‘질서’(orderliness)와 ‘순수함’(purity)으로도 원래부터 이미 황폐해진 갓프리의 삶을 비유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⁸⁾

18) Sally. Shuttleworth, *George Eliot and Nineteenth-Century Scienc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93.

지방지주의 아들로 부와 명예,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여 상속권과 낸시를 잃고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물리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절망한다.

…스스로가 땅을 팔 줄도 모르고, 또 구걸하기도 싫어하는 이 조그만 지주의 상속권 없는 아들은 마치 땅과 하늘의 덕분으로 처음에 싹터 나와 훌륭한 나무로 자란 나무가 뿌리째 뽑혀진 것처럼 꼴이리라. 만일 자기가 직접 땅이라도 갈아 먹는다는 말에 낸시 래미터(Nancy Lammeter)가 자기와 결혼해 준다면 다소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상속권과 함께 그 여자마저 빼앗겨야 하고, 자기를 타락시키고 좀더 향상해 보겠다는 동기마저 잃게 만든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의 인연도 끊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고백한 뒤의 그의 장래라는 것은 “군에 입대하는 것” 뿐이었다. 입대라는 것은 훌륭한 집안에서는 자살 다음가는 절망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었다. (79-80)

지역사회 레블로에서 지배계층으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계층의 낸시와 결혼하고자 한다. 재산과 명예욕 때문에 아버지 몰래 하층계층의 여자와 결혼한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당하게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사실을 털어놓지도 못한다. 술집여자와 결혼했다는 비난을 받기가 두렵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재산과 땅, 작은 영주의 아들 자격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하층민과의 결혼을 후회하며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술집에서 닭싸움 이야기나 들으려는 무기력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보다 더 나쁜 경우가 아직도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추문이 폭로될 때 그가 처할 경우였다. 다른 무엇보다 끊임없이 그를 억누르는 요구는 그 무서운 날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날이 오면 가문을 더럽힌 자라는 아버지의 심한 책망을 들어야 하고, 또 아마 자기가 살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대대로 물려오는 안락과 위엄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를 일이며, 또 영원히 낸시 래미터를 볼 수 없고, 그 여자의 존경을 받을 수 없게 쫓겨날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다. (79)

같은 계층의 딸인 낸시와 결혼하는 것이 사회의 호의적 평판을 유지하고 재산과 계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 캐스와 마을 사람들은 갓프리가 방황하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낸시밖에 없다며 갓프리와 낸시가 결혼하길 바란다. 래블로에서 계속 생활해온 점 이외에도 재산을 물려줄 아버지의 판단과 의견, 지주라는 계층 유지 욕망, 마을 사람들의 평판과 사회적 이목 때문에 갓프리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폐쇄적인 면을 지니게 된다.

갓프리가 낸시와 결혼하려는 또다른 이유는 낸시를 통하여 내면의 안정과 애정을 얻기 위한 것도 있다. 캐스 집안은 가정의 주춧돌인 어머니의 존재가 없음으로 해서 집안 분위기는 의기소침하고 애정 결핍 상태이며, 자식들은 타고난 본성에 비하여 좋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했고 방종함에 젖어 있다. 그 중에 갓프리는 아버지 캐스의 완고하고 급한 성격과 부모의 애정 결핍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고 기회에 의존하여 이기적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 갓프리는 래미터 집안의 ‘청결함, 순결함과 자유스러운 질서감’(neatness, purity and liberal orderliness)을 갈구하며 낸시를 ‘근면함, 평온감, 평화’(industry, sobriety and peace)를 가져다 줄 ‘좋은 천사’(good angel)로 보고 이러한 낙원을 꿈꾼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애정의 유대가 결여된 갓프리에게 낸시는 그가 갈망하는 모성애와 질서의식과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춘 여성으로 인식된다.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멍에가 씌워진 갓프리는 점점 악한 인간이 된다. 갓프리는 유일하게 자신의 비밀을 아는 동생 던스턴(Dunstan)이 말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비밀 결혼한 물리가 동사하자 낸시와 결혼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마음 한 편으로는 자신의 아이를 부족한 것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자신을 합리화한다.

갓프리는 자기 앞길에 거치적거리던 던스턴의 그림자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앞길은 가장 귀하고 오래 꿈꾸어 오던 희망을 성취할 수 있는 데까지 곧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없는 또 하나의 자기 딸 -그는 결코 그 애를 잊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그 애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잘 보살펴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다. (222)

당연히 아버지로서 혈육을 키워야 하는 도덕적 의무보다 사회적 지위와 같은 계층의 여인과의 결혼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일러스가 캐스 집의 송년 파티에 와서 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자, 갓프리는 일부러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사일러스에게 약간의 돈을 준다. 파티 도중에 하층민 몰리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나가는 행위와 사일러스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려는 갓프리의 제안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절하고 관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재산과 계층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결혼으로 계속해서 마을의 권력층으로 남고 싶은 욕망 때문에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하여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자기 확대의 욕구가 없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다.

갓프리가 의도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낸시와 결혼하는 행운을 누리나들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아이가 없어서 적적하고 허전한 갓프리는 자신의 재산과 가문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낸시에게 에피를 양녀로 들이자고 하지만 거절당한다.

낸시가 원하는 목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웅덩이에서 물을 뽑아내던 갓프리는 물이 마른 스톤 피트(Stone-pit)에서 16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던 동생 던스턴의 시체와 함께 사일러스가 잃어버렸던 금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과거를 낸시에게 고백한다. 갓프리는 딸을 버렸던 16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자식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 에피를 데려오기 위해 낸시와 같이 사일러스의 집으로 간다.

갓프리와 낸시는 에피에게 친부임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권한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부분에서 계층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즉 에피의 행복을 물질과 사회 계층에 기준을 두고 판단하여 직조공인 사일러스보다 지주계층인 그들이 부모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에피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에피는 지주계층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둘이 공유해온 계층적 유대감을 선택하며 사일러스를 택한다. 에피의 선택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사회계층보다는 진심어린 애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가 구석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만사를 제가 돌봐드리는 그런 집이에요. 저는 다른 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귀부인이 될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품팔이꾼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의 음식이 좋고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좋아요. 그리고 ,” 에피는 너무 격해서 말을 끊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저는 노동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봉양하며 저를 돕기로 했어요.” (222)

에피의 이 말은 계층의식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지주라는 특권층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가치관의 결과이다.¹⁹⁾ 갓프리는 재산과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에피가 필요하고 에피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한 것이지만 사일러스는 에피가 없으면 살지 못하고, 독신남성으로서 에피를 키우려면 고립되어서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고 상호교류했고 그 결과 마을 사람들과 에피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다.

갓프리의 이기심은, 그가 에피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녀가 가난한 노동자인 에어런(Aaron)과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귀부인(a lady)의 영예와 재산을 보장해 주기 위해 데려가려는데 대해 사일러스가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서 절정에 달한다. 갓프리는 사람을 인격, 성격, 덕성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는 인습적인 레이디라는 기득권 개념과 신분을 중시해서 에피의 장래에 영

19) Ian Millner, *The Structure of Values in George Eliot* (Prague: Charles University Press, 1967), p. 44.

향을 주려고 한다. 딸을 외면했던 잘못을 청산하려는 생각으로 사일러스의 감정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것이 에피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잿프리의 언행은 그의 뿌리깊은 젠트리계층의 특권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잿프리가 처음으로 에피를 마음에 둔 것은, 약 열두 살쯤 되었을 무렵, 자기 집에 데려다 키우기에 꼭 알맞은 어린애 시절이었다. 사일러스가 에피와 헤어지기보다 차라리 제 목숨을 내놓으리라는 것은 그의 생각에 떠오르지 못했다. 참으로 그 직조공은 것처럼 애지중지하는 어린것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랐을 것이다. 또한 에피에게 이러한 크나큰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면 에피도 늘 그에게 감사히 생각할 것이다. 또 그가 죽는 날까지 잘해줄 것이다. 자식에게서 헌신에 못지않게 해 줄 것이다. 지위 높은 사람이 하층민의 짐을 덜어준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특별히 잿프리에겐 당연한 일같이 생각되었다. (277-278)

잿프리는 가문, 체면, 재산, 계층을 지키려는 욕망 때문에 인간애를 구현할 수 없었다. 한 때는 축복이었던 사회적 신분이 결국에는 장애가 된 것이며 에피를 데려오고자 하는 것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소유욕 때문이다. 우위의 신분으로 우월성을 강조하지만 에피에게 거부당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된다. 딸을 외면하고 그 사실을 16년 동안 숨기는 비도덕성과 아버지로서의 의무 외면, 인간애의 결여, 많은 비밀, 젠트리계층에 대한 유지 욕망 때문에 결국은 친딸에게 외면당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

사일러스는 고향 랜턴 야드에서 잃어버린 것을 래블로에서 회복하려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적응해 나간다. 부르조아를 양성하는 공업도시 랜턴 야드에서 사일러스는 산업사회의 계층구조 변화를 체득했고 돈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였다. 사회 변동 양상을 체득했기 때문에 자립하여 사회적인 커리어를 창조할 수 있었다. 수공업자 장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회 변동 양상을 생활 속에 구현했으며 과거에 구애받지 않고 사

회 현상에 대하여 진보적이며 개방적으로 대처하여 창조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척한 신중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갓프리와 달리 신분에서 자유롭고 기득권과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애를 구현할 수 있었고 개방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갓프리의 존재 의의는 계층, 재산, 체면, 가문을 잇고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라는 소유의 측면에 있고, 사일러스는 인간애를 실현하는 가운데 존재 이유를 인식하며 자아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자존감을 느낀다. 엘리엇은 친딸을 유기하고 외면하는 비도덕적인 갓프리를 통해 지주계층의 허상과 몰락을 드러내었으며, 정직하고 인간적이며 역동적인 중간계층의 삶을 구현한 사일러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그의 일상생활을 표현하여 미래 시대의 주인공인 중간계층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았다.²⁰⁾

갓프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농촌 마을 래블로에는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상류층 사람들이 거의 없다. 특히 캐스 집안의 사람들이 그러한데 아버지 캐스(Cass)는 래블로의 제일 큰 지주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어서 장남 갓프리에게 소작인 관리와 소작료 징수를 담당하게 한다. 소작인들의 악행이 그의 부주의함 하에 행해지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어느 순간 가장 엄한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호소도 들어주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지주 캐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엘리엇은 나폴레옹 전쟁 특수와 혜택의 누리고 부를 확대해 나가는 지방지주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더욱 가난해지는 소작인의 당시 영국 농촌 경제 상황을 표현하였다. 지방지주의 계층적인 이익을 위해 전쟁 중에도 기존의 소작료를 받으려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리비스(Q.D. Leavis)에 따르면 당시의 급진주의 사상이 『사일러스 마너』에 강하게 표현되었고, 『급진주의자 펠릭스 홀트(Felix Holt, the Radical)』를 창작하게 하였으며 엘리엇의 지방지주에 대한 혐오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고 하였다.²¹⁾

캐스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자신보다 높은 젠트리계층과 교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편협하고 보수적이다. 래블로에서 강력한 힘을 가

20) 김봉률, 「George Eliot의 유기체론과 리얼리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84.

21) Q.D. Leavis, p. 293.

진 사람으로 묘사되어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살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납고 으스대는 어조로 명령하길 좋아한다. 래블로 사람들은 그의 딱딱하고 군림하는 어조를 젠트리계층의 특권으로 인식한다. 전쟁의 특수를 누리며 호사스러운 살림을 하며 아침 식사 때 노동자들이 일 년에 겨우 한 번 먹을 수 있는 식량에 해당하는 고기 덩어리를 자신의 사냥개에게 주는 모습은 절제되지 않고 무분별한 지주계층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캐스의 이러한 생활 태도는 아들들의 방탕한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장남 잭프리는 아버지 몰래 결혼을 하고 딸을 외면하는 책임감이 결여되고 근시안적인 인물로, 차남 던스턴은 도박을 즐기는 망나니에다가 사일러스의 돈을 훔치는 인물로 나오고 있다. 또한 캐스의 편협하고 모자란 식견과 완고한 성격이 아들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잭프리로 하여금 사회변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간계층의 사일러스, 바퀴수선공의 아내 돌리, 양복쟁이 메이시는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사일러스는 잭프리가 외면한 에피를 키우며 인간애를 실현하고, 돌리는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일러스를 위로하며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마음을 지녔으며 솔직함과 유머를 갖춘 여인이고, 메이시는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양복쟁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사일러스를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의 인간애를 간파한 사람으로 오히려 중간계층의 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 귀감이 된다.

사일러스는 성실과 근면,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인하여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공동체에 복귀하여 타인과의 개방적 관계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 사일러스의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성과 자아를 회복한 모습을 통해 작가 엘리엇의 개인과 사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계층적인 측면에서 두 인물을 볼 때 사일러스는 지식이 풍부하거나 사회변동 양상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은 아니며 경제적으로 그다지 여유가 없는 뼈띠 부르조아이다. 15년 동안 모은 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스스로 개방적으로 변모할 수 밖에 없었다. 기득권이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갖프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주로 존경받으며 돈과 권력, 명예를 갖춘 기득권층이다. 본인이 변화하지 않고 개방적인 관계를 모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방으로 나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딸에게 외면당하고, 에피의 결혼식 날 초대받지 못하고 마을에서 소외된다.



IV. 과거의 재생과 단절

인간에게는 자기 확대의 욕구가 있고, 삶의 외연을 넓혀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러한 욕구와 인식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과거의 재생을 통한 현재의 삶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누구나 과거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생시키지 못한다. 사일러스는 과거를 처음에는 부정하고 외면하다가 차츰 새롭게 재생시켜 미래 창조의 자산으로 활용한 반면에 갓뜨리는 계속 과거를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딸에게 거부당하는 불행을 겪게 된다.

랜턴 야드에서 사일러스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약초에 관한 지식과 처방을 포기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자연과 벗하는 기쁨을 거부하는 것이며, 조상의 지식을 후대에 전하지 못하는 세대 단절을 의미한다. 이 이후부터 사일러스는 약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과거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버리게 된다. 랜턴 야드를 떠나며 과거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 사일러스는 래블로에 온 이후 랜턴 야드에서의 일을 잊기 위해 오로지 일에 몰두하며 마을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며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다.

옛 신앙과 애정에서 추방당한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방랑의 길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는 모든 표상이 없어지므로 꿈과 같이 몽롱한 것이 되어버리고, 현재 역시 과거와의 연결이 끊어지므로 꿈과 같이 되어버린다. (50)

랜턴 야드와는 종교와 생활 방식이 다르고 또, 시골 특유의 고립성과 배타성을 띤 래블로에서 과거를 망각하려고 했던 것이 사일러스가 새로운 거주지에서 처음에 보여준 모습이다. 동물처럼 아무 생각없이 본능적으로 일만 하며 과거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그를 돌보던 신의 부재는 더욱 그에게 편협한 사고를 가져오고 애정은 고갈된다.

심장병과 몸이 붓는 병으로 고통받는 샬리 오우츠에게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의 지식으로 약을 지어 고쳐주며 사일러스는 래블로에 온 이후 처음으로 ‘과거와 현재 삶 사이의 일체감’(a sense of unity between his past and present life)을 느낀다. 그러나 순수한 동정심에서 베풀었던 약초처방 비법이 공포와 의혹으로 혼합된 이웃들의 시선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더 이상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 터득한 약초에 대한 지식도 랜턴 야드에 관련된 어두운 과거이기 때문에 철저히 부정하고 외면한다. 과거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약초를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

사일러스는 자기 자신과 자기집 주위가 백일해를 마술로 쫓아 달라든가, 혹은 젖을 나오게 해 달라는 부인네들과, 신경통이나 손에 난 사마귀에 잘 듣는 약을 달라는 남자들로 갑자기 에워싸인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그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사람들을 내쫓아버렸다. 왜냐하면 그가 점치는 남자라는 소문이 타알리까지 퍼져서 그의 도움을 구하러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이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지혜를 빌고 싶다는 희망은 일종의 공포로 변해 버렸다. 그래서 그가 아무 마술도 모르고 치료할 줄도 모른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으며, 그에게 부탁해 본 후에 무슨 사고나 병이 났을 때는 남녀 할 것 없이 이 모든 불행은 마녀의 악의와 기분 나쁜 눈초리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샬리 오우츠에 대한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그의 행동은 잠시 이웃과의 친밀감을 주는 듯했으나 오히려 그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증오심이 생겼으며, 그를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

(56-57)

이웃사랑, 우애, 염려와 같은 인간적인 활동을 하고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사람들을 대하던 모습은 과거에 속하는 것이며, 그는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기도 싫어한다. 그의 생활은 과거로부터 위축되어 회미해지고, 과거는 현재의 삶과 연결 되지 않는다.

금화를 잃어버린 후 실의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바퀴제조공의 아내 돌

리가 성심성의껏 그를 위로한다. 돼지기름에 튀긴 과자를 먹어보라고 권하며 일요일에는 일을 쉬고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 사일러스가 살았던 랜턴 야드에서는 일요일의 종소리가 신성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랜턴 야드에 종이라는 것이 없었다. 사일러스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단지 예배당에 가보았다고 덧붙인다.

“아니, 들었습니다. 들리던데요.”하고 사일러스는 말했다. 그에게는 일요일 종소리도 단순히 일상적인 일이지, 무슨 신성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랜턴 야드에는 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 있었죠.”하고 사일러스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언제나 하듯이 무릎 위에 두 팔꿈치를 올려놓고 머리를 받치는 자세로 앉아서 “교회가 있었지요. 정말 많이 있었지요. 큰 도시였으니까요. 그러나 난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는 가 보았지만요.”하고 말했다. (163-164)

예배당은 공업도시에서 비국교도들 특히 감리교도들이 경배했던 장소이고 비국교주의의 덜 유쾌한 양상이 나타나는 곳이며 사일러스로 하여금 신앙을 외면하게 한 매개체이다.²²⁾ 사일러스에게 과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게 만든다. 표면상 경건하고 청교도적인(감리교) 비국교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순수한 신앙을 외면하게 만드는 점은 아이러니이지만 『사일러스 마너』에 표현된 것처럼 감리교에 대한 성격 묘사와 부정적인 시각이 엘리엇의 작품 세계에 고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에피를 발견한 순간의 사일러스의 반응은 과거를 재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일러스의 성격 변화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갓프리네 집에서 송년 파티가 열리는 날 몰리가 에피를 데리고 오다가 동사하고 혼자 남은 에피가 사일러스의 집으로 걸어 들어온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심한 근시의 사일러스는 아이의 황금빛 머리를 잃어버린 금화로 착각한다. 그러나 ‘어린 아이’임을 확인한 순간 어린 시절 죽기 전까지 1년 동안 그의 팔에 안고 다니던 그의 누이동

22) John Purkis, *A Preface to George Eliot* (Hong Kong: Longman, 1985), p. 33.

생이 꿈속에서 돌아온 것일까라고 의심한다. 어린 시절에 죽은 누이동생을 떠올리며 랜턴 야드로 가는 옛 집과 그리운 옛 거리들을 머리에 떠올린다. 따스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차츰 인간적인 애정을 회복한다. 과거의 감정이 부활하며 이제까지 단절시켰던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연결시킨다. 망각 속의 과거와의 연결을 시작하며 과거와 현재를 융합시키고 미래를 창조하게 된다. 에피를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예전의 삶으로부터 그에게 보내진 어떤 ‘메시지’(message)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옛날 자기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러한 생각들은 마치 부활시킬 수 없는 옛 우정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이제 하나의 이상한 물건과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아기는 지난 과거에서 보내온 하나의 메시지라는 꿈과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은 그가 래블로에 와서 한번도 발휘할 기회가 없었던 어떤 힘을 북돋아 주었다-옛날의 아름다운 마음씨-자기의 생명을 주재하고 있는 신에 대한 옛날의 그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209-210)

과거의 애정의 기억을 현재에 되살림으로서 비로소 현재의 인간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며, 다시 깨어나는 감수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상들을 혼합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일체감의 의식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에피를 키우는 사일러스에게 돌리는 세례(christened)를 주라고 권유하는데 사일러스는 이 세례라는 말을 랜턴 야드에서 살 때 경험했던 감리교에서 성인 남녀가 받는 침례(baptism)로 이해한다. 돌리의 자상한 설명으로 세례라는 말을 이해하고 어머니와 누이동생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세례명을 에피라고 짓는다. 과거에 익숙했던 약초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옛날과 변함 없는 약초 잎을 보며 과거의 생각을 되살린다.

에피가 성장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감수성이 개발되고 더 나아가 과거와 현재 사이의 통일성을 인식한다. 에피를 키우며 이웃과의 관계와 친교를 생각하게 되어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고 세계에 대한

의식과 과거와의 연관들을 재생시키며 미래의 행복에 대해 알게 된다. 특히 돌리의 도움으로 랜턴 야드에서의 맹목적이고 무모했던 신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랜턴 야드에서 그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서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아는 어린아이처럼 찬송가의 가사와 추상적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신앙에 매달렸었다. 과거의 신앙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찰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감수성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기억도 되살아났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통일성의 인식을 회복할 때까지 그는 옛날의 신앙의 요소를 깊이 생각했으며, 그것을 새로운 인상과 혼합했다. (254)

과거의 무모하고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 넓은 의식의 지평에서 사고하게 된다. 랜턴 야드에서의 배신 때문에 세계와 인간을 경계하고 의심하던 사일러스는 에피를 양육하며 심리적으로 과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발생한다. 과거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현재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과거와 현재의 의식적인 결합 위에서만 미래의 방향 설정을 도모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웃과 유대관계로 맺어지고 있는 현재로부터 미래의 따뜻한 인상을 이끌어내며 과거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미래와 연결시킨다.

사일러스에게는 일상 생활의 평범한 습관에서도 과거를 보존하려는 면이 보이는데, 그가 래블로로 이주해 와서 실의에 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물을 길어 나르던 물동이 깨지자 그 조각들을 모아서 집 한 구석 잘 보이는 곳에 기념으로 세워둔다. 12년 동안이나 외로운 그와 같이 있어준 물동이에 의미를 부여하여 보관함으로써 과거의 추억을 간직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에피가 처음 들어와서 기뻐던 화덕을 그대로 보존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한 구석 화로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어린 에피가 그의 집으로 걸어 들어와 기댄 ‘그 희한한 경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적극적으로 과거를 보존하고 미래에 연결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에피가 지식을 쌓으며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아픈 기억을 회상하게 되면서 사일러스는 독자적 개체성을 더욱 굳건하게 강화시킨다. 인식이 확대되며 랜턴 야드에서의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젊은 날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아이의 마음이 차차 지식이라는 것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의 마음은 추억으로 접근해 갔다. 아이의 생활이 점점 전개되어감에 따라 오랫동안 차갑고 좁은 감옥 안에 갇혔던 그의 영혼도 넓게 열려서, 점점 완전한 의식 속으로 떨면서 전개되어가는 것이다. (255)

16년이 흘러 에피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사일러스는 스스로 감정의 부활과 더불어 기억도 되살아나 과거에 랜턴 야드에서의 신념의 본질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또 그러한 본질을 새로운 일상과 혼합시켜 봄으로써 마침내 자기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듯한 의식을 갖게 되자 돌리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한다. 랜턴 야드에서 친구 윌리엄이 자신을 배신한 이야기와 제비뽑기 사건을 전하며 이 세상에는 고통과 사악함이 많지만, 대신 아이가 보내진 데 대해 선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과거를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를 현재와 미래의 삶과 연결하는 것이다.

“아닙니다.”하고 사일러스가 말했다.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윈드롭 부인-옳은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도 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선이 얼마든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제비뽑는 일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내게 아이를 보내주었던 말예요. 분명히 하느님 일이죠. 하느님 일입니다.” (258)

에피와 사일러스는 돈독한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일러스는 에피가 성장했을 때 자신의 과거와 에피의 어렸을 적, 물리가 죽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며 정직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한다. 에피는 일찍부터 자기 어머니

가 눈 속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아버지 사일러스가 난로 앞에서 자기를 찾았다는 사실, 아버지가 자기의 금발을 보고 잃어버린 돈이 되돌아온 줄로 알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제 사일러스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재의 에피와 자신의 삶에 연결시킨다.

레블로에 와서 에피를 만나기 전까지 사일러스는 과거에 대해 부정적 감정의 소유자였고,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 확실히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로 나온다. 에피를 키우게 되면서 차츰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하며 긍정적 감정으로 변하며 감정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세상을 주재하는 선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어두웠던 것은 과거에 무슨 과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갖기에 이른다.

모든 순수한 평화와 기쁨과 함께 오는 인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재하는 선에 대한 의식이 생김에 따라 그는 과거에 무언가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시절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었다. (253)

사일러스는 적극적으로 과거와 대면하기 위해 에피가 결혼하기 전에 상처 받았던 과거에 맞서고 과거 상처의 휴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에피와 같이 랜턴 야드를 찾아간다. 사일러스가 스물 다섯 살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랜턴 야드는 완전히 공업 도시로 변하여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애야, 이거 봐라.”하고 사일러스가 말했다. “저기 야드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맘때 예배라도 보는 모양이지. 일요일도 아닌 대낮에!” 사일러스가 깜짝 놀라서 불안한 표정을 하며 그 자리에서 버렸다. 에피도 따라서 놀랐다. 그들은 큰 공장 앞마당에 이른 것이었다. 거기서 남녀 할 것 없이 점심을 먹으러 몰려나오고 있었다. (310)

사일러스가 레블로에 와서 산 30여 년 동안 영국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하여 농촌이 공업 도시로 변하고 도시에는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물레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리넨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며 직조업은 사양산업이 되었다. 산업의 기계화는 수많은 전통 기능인들과 장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갔고 자부심으로 빛났던 개인 수공업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직조공의 베틀은 공장의 기계로 대체되었다.²³⁾ 짧은 시절의 누명을 벗기 위해 다시 찾아간 랜턴 야드는 옛날의 예배당과 동네의 모든 집들이 사라지고 큰 공장이 들어섰으며, 질식할 것 같은 매캐한 냄새와 소음과 지나치는 무관심한 얼굴만이 있는 잿빛 도시로 변해 있었다. 도시의 삭막한 모습과 오염된 공기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는 불결한 주거 환경 때문에 사일러스는 당황한다. 옛날 목사였던 패스턴(Mr. Paston)을 만나 제비뽑기의 어리석음과 래블로의 종교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던 사일러스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한 채 래블로에 돌아온다.

랜턴 야드의 과거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을 발견하는 것은, 사일러스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랜턴 야드를 방문함으로써 사일러스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아 괴로웠던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와 미래를 보다 중요한 의미로 여기고 살아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²⁴⁾ 랜턴 야드가 과거 속에만 존재하듯이 도둑 누명도 그의 과거 속에 그냥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빛’을 찾기 위해 간 랜턴 야드는 영원히 ‘어둠’만을 발산하는 장소로 남아 있다는 사일러스의 말에 돌리는 그 모든 것이 신의 뜻이며, 비록 인간에게는 어둠으로 남아 있지만 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정당함’이 존재함을 피력한다. 이에 대해 사일러스는 자신은 에피를 통해 사랑을 되찾고 신을 믿게 되었기에 충분한 ‘빛’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죠.”하고 사일러스는 말했다. “그렇죠, 다 무슨 뜻이 있겠죠. 그 애가 나한테 오게 된 후부터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 때부터 난 정말 의지할 만한 빛을 찾았죠. 이제는 그 애가 나를 영영 안 놓겠더니

23) Q.D. Leavis, “Introduction,” *Silas Marner* (New York: Penguin Books, 1967). p. 39.

24) 권정희, 「George Eliot의 소설 연구 - 道德的 비전과 에고이즘의 樣態-」,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 63.

나도 죽을 때까지 그 빛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어요.” (311)

사일러스는 처음부터 과거를 현재의 창조적 자산으로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랜턴 야드에서 신앙과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철저하게 현재의 자신과 과거를 단절시키다가 에피를 키우며 인식이 전환한다. 에피로 인하여 과거를 현재 삶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맹신에 가까웠던 과거의 신앙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여 원숙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와 달리 갓프리는 기득권 수호의 욕구가 강하고 과거의 과오와 현재의 자기 혁신적 요인을 고의적으로 의식에 떠올리지 않는다. 과거를 은폐하고 외면하며 과거와 현재를 단절해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삶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자식에게 비난받는 것이다.

갓프리는 몰리와 결혼을 후회하며 몰리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술김에 비밀결혼을 하고 술이 깬 뒤 자신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서 자신의 저열한 욕망과 환멸, 환멸스런 각성의 더러운 얘기를 후회한다. 그의 생애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은 과거이고 아무에게 말 못하고 숨기고 부정하고 싫어한다. 자제력을 잃고 유혹에 빠져서 타락했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 아버지에게 고백할 말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잠을 청하지만, 아침에 깨어나면 확고한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치욕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기회에 의지하려는 기분만이 남게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모든 인간 관계가 인간의 약한 마음에 미치는, 무엇이든 규정할 수 없는 조그만 힘에 이끌려 그는 남몰래 결혼을 했다. 이것이 그의 생애를 좀먹는 해충이었다. 그것은 갓프리의 쓰라린 과거의 비밀 가운데서 끄집어낼 필요조차 없는 비열한 열정과 망상의, 그리고 그 망상에서 깨어난 괴로운 이야기이다. (77)

‘선천적으로 결단력이 없고 겁쟁이’(natural irresolution and moral

cowardice)인 갓프리는 던스톤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인 말 와일드파이어(Wildfire)를 내다 팔도록 동생에게 넘긴다. 시장이 있는 배털리(Baterly)에는 비밀 결혼한 여인 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을 꺼려서 동생에게 일임한다. 과거의 행동에 책임지려 하지 않고,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회피하고 외면한다. 몰리와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갓프리는 아내를 증오하고 과거의 자신을 탓한다.

그러나 내일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다른 이유라는 것은 내일 아침 회합이 있을 장소가 바로 배털리 근처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있는 읍내에는 나날이 그 얼굴 생각만 해도 싫어지는 불행한 그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일대 어디에나 그 여자가 귀신처럼 나타날 것 같았다. 아무리 천성이 착한 인간일지라도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자신이 명예를 뒤집어 썼을 때엔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80)

말이 탐나서 타다가 실수로 말을 죽이게 된 던스톤은 당황하게 되고, 일부러 밤에 마을로 들어오다 사일러스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된다.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 기운없이 돌아오던 던스톤은 사일러스가 돈을 많이 모았다는 소문을 떠올리고는 그의 집을 털어 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깊은 물 웅덩이 스톤 피트에 빠져 익사한다.

송년 파티가 열리는 날 갓프리는 사일러스에게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어떤 여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항상 마음의 부담이었던 몰리가 동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눈길을 걸어 사일러스의 집에 간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낸시와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친딸을 외면하고 사건의 진실을 묵살한다.

점점 더 깊이, 강렬한 욕망과 공포 때문에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자기는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는 행동의 책임을

지고 여자가 자기 아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의지할 곳 없는 아기를 맞아 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능한 한, 낸시를 실제로 포기할 도덕적인 용기가 없었다. 그는 오직 포기해 버리지 못한 자기의 약점 때문에 영원히 자신을 괴롭힐 양심과 인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마음은 모든 구속에서 빠져나와 오랫동안 엮매였던 쇠사슬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희망 속에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218)

어쨌든 낸시 레미터 앞에 과거를 고백해서 자기에게 올 행복을 내동댕이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니 자기의 행복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행복까지도 거부해 버릴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여자 역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 아기는 아버지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란 장래의 일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무슨 다른 설명은 필요없다-자, 그렇다면 아버지에게는 그 애가 없는 편이 더 행복할 것이다. (222)

몰리가 혹시 죽지 않았나 하는 불길한 공포와 정말 죽기를 바라는 사악한 욕망은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갓프리의 심리적 폐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아버지를 비롯한 레블로 사람들에게 비밀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중적인 도덕을 지닌 인물이다. 갓프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친권을 버리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일러스가 에피를 맡아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은폐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낸시와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한다. 낸시와의 결혼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무난해 보이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제력을 잃고 유혹에 빠져 타락했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

없어지기를 바라고, 항상 마음의 부담이었던 몰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해 하나 16년이 지나도 죽은 몰리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 몰리가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 고통을 준다.

그는 돌리가 세심한 주의를 해서 부드럽게 한 베개 위에 놓인 죽은 얼굴을 오직 한번 넘겨다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불행하고 미움받았던 그의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그때의 기억은 오랫동안 뚜렷하게 남아 있어서, 그가 16년 후에 이날 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야윈 얼굴의 주름살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219)

과거가 은폐된 상태에서 낸시와 결혼한 잭프리는 에피에 대한 친권을 거부한 대가로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 아이가 있었지만 금방 죽어버렸고 그 후 다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15년 간 자식이 없는 쓸쓸한 결혼 생활을 한다. 잭프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닌 낸시까지도 불행을 겪는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잭프리는 낸시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지 못하고 내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가정의 평온과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죄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낸시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며 자식을 갈망한다.

잭프리는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단순하고 진실한, 고난에 부딪치기에는 너무나 약한 그의 동요하기 쉬운 성질은, 언제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지키고 있는 자기 부인을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래서 에피에 대한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온 사실을 이제 와서 밝힌다면 그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증오심을 낸시는 결코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마음속에 이런 비밀을 감추고 결혼한 바에야 끝까지 그것을 감춰두어야 하는 것이다.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오랫동안 사랑해 온 아내와 다시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내가 들어와 밝아진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쯤을 왜 단념하지 못할까? 마치 이것이 그의 인생이 도무지 재미가 없어져 버린 유일한 이유인 양, 그의 심정이 불안하게 허공을 떠도는 것은 왜

일까? (279-280)

갓프리는 아이가 없는 것이 과거에 에피를 거부한 데 대한 벌이라고 느낀다. 그는 낸시에게 에피를 입양하자고 오래 전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고 더욱 혼자서 아이를 갈망한다. 시간이 흘러도 낸시가 에피를 계속 거절하는 모습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기가 더 어려워짐을 느낀다. 낸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므로 구태여 양자를 들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낸시는 철저히 인습적이며, 자식이 없는 결혼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첫 아기가 죽은 후에 아이가 없는 것을 신의 뜻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무책임한 과거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 동생 던스틴의 시체와 사일러스의 금화가 사일러스 집 근처 웅덩이에서 발견된 날 갓프리는 모든 비밀을 낸시에게 털어놓는다. 낸시는 그 사실을 6년 전에만 알았어도 딸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했을 것이라고 아쉬워 한다. 베네트(Bennett)는 이러한 반응이 낸시의 본능적이고 도덕적인 확신의 표출이며, 판단력은 부족하지만 따뜻한 마음씨와 어우러진 그녀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⁵⁾ 또한 낸시는 갓프리의 과거의 행동을 용서하고 에피를 인정한다.

갓프리는 낸시와 함께 에피를 찾으러 갔지만 거부당한다. 에피는 갓프리에게 과거를 속죄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 갓프리를 도덕적으로 뉘우치게 하고 사일러스의 말처럼 스스로 복을 차버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에피에 관한 사실은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으로 하자고 낸시와 합의한다.

“돈처럼 이자를 덧붙여 갚을 수 없는 빛이 세상에 있지. 지나간 몇 해 동안의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준대도 말이야. 내가 미루고 미루는 동안에 나무는 자랄 대로 자랐어- 이젠 너무 늦었어요. 사람이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사일러스의 말이 옳아. 한때는 자식이 없이 지내보려고도 했지. 낸시 - 뜻대로 안되는 일이니 역시 자

25) Joan Bennet, *George Eliot: Her Mind & Her Ar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 136.

식 없이 살아야겠소.” (304)

에피로부터 거절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타인의 강력한 감정이 존재함을 자각하게 된다. 갓프리만이 에피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은 그의 과거의 과오로 인하여 래블로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의미한다.²⁶⁾ 과거를 부정함으로써 예전의 사일러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고립되었으며, 자신의 과거를 말해주는 혈육 에피를 외면함으로써 결국은 자식이 없이 사일러스가 보낸 지난 15년의 세월처럼 쓸쓸히 생활하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과거를 묻어두고 비밀로 덮어두려 한 결과가 자식에게 거부당하고 친아버지라는 허울만이 남은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실을 낸시와 자신만이 아는 것으로 하며 과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오로지 신의 섭리를 따르며 정확히 옳고 그름에 대한 완고한 생각을 지니고, 갓프리처럼 체면을 중요시하는 낸시는 갓프리가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하며, 주어진 운명에 스스로 체념하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사일러스와 달리 갓프리는 과거를 부정하고 외면하여 현재와 미래에 창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 젠트리계층으로서 기득권과 재산, 명예를 유지하려는 욕망과 도덕적 무책임과 이기적 욕구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명쾌하게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를 부정하고 외면한 대가로 영원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친딸에게 거부당하여 쇠락한 인생을 살게 된다.

26) Jerome Thale, p. 66.

V. 결론

이 논문에서 사회계층적인 성격차이를 고찰한 것은 인간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사회계층의 영향을 중시하기 때문이었다. 『사일러스 마너』의 배경인 19세기 영국사회의 계층구조와 사일러스와 갓프리의 인간관계의 개방성과 폐쇄성, 그들의 과거 재생의 창조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 이 논문은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셈이다. 주인공 사일러스의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복귀 과정에서 산업화되는 근대사회와 개인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에는 작가의 사상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사일러스 마너』에는 엘리엇의 실증주의적 세계관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유기체론이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의 과학자들은 자연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일정한 자연법칙이 지배한다는 콩트의 실증주의를 믿었다. 실증주의자들은 보편적인 물질법칙과 사회통제의 원리가 인간정신과 의지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엘리엇도 콩트의 영향을 받아 자연계를 지배하는 자연법칙은 인간생활에도 적용되어 인간은 이것을 조정할 수는 있어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자연적 사회환경이 인간 존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파악하여 인간의 실체를 자연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포착하였다. 엘리엇이 실증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실증주의자들은 사회결정론적인 태도와 역사결정론적 경향이 강한 반면에 엘리엇에게는 자유의지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과 이와 반대되는 결정론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공존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엇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회개선주의(Meliorism)라는 어휘를 썼고 자신을 사회개선주의자(Meliorist)라고 칭했다.²⁷⁾

이같은 사상에 기초를 둔 엘리엇은 또한 인간 존재를 인과의 연속성 속에서 규명하였다.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된 행위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작품의 등장인물을 어떤 환경의

27) 조정호, 『조지 엘리엇의 소설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p. 124.

저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창조하고 묘사했다. 『사일러스 마너』에서 마너가 에피를 사랑으로 양육한 결과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금화를 되찾는 것이 되고, 갓프리가 젊은 시절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친딸을 유기한 결과는 새로 결혼한 낸시와의 사이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행을 겪어야 하고 급기야 에피로부터 아버지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자연법칙의 인과적 필연성에 대해서도 도덕적 대가가 치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유기적 삶을 추구하고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의존성과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유기체론(theory of organism)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평탄하고 직선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엘리엇은 사일러스의 사회복귀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기적 공동사회를 향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구사하였다.²⁸⁾ 사일러스가 에피를 양육하기 위하여 타인들에게 개방적인 관계로 변모하는 과정은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엘리엇의 진화론적 사고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엘리엇은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감적 상상력(sympathetic imagination)임을 강조해서 종교와 인간주의적인 삶을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사상가와 예술가가 탐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사일러스 마너』에 인간 중심 사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성서의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랜턴 야드의 청교도보다는 종교는 사회조직의 일부이며 엄격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는 인간적인 래블로의 종교가 사일러스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변화시킨다.

작가는 자신이 처한 사회 현상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간파해서 작품으로 나타낸다. 엘리엇은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귀족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중간계층과 노동계층에게로 세계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간파해서 작품으로 표현했고 비도덕적이며 이기적인 갓프리를 통해 지주계층의 허구성을 드러내었다. 당시 영

28) *Ibid.*, p. 128.

국사회의 변동을 갓프리의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행동을 통해 지주계층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언뜻 보면 우연한 사건의 빈발과 사일러스의 생애가 희한한 극적 사건으로 이어져서 권선징악의 도덕교과서나 교훈적이며 흥미있는 우화 같은 작품이지만 엘리엇은 작품 속에 시대상과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탄탄하게 구성하여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였다. 산업화가 인간성을 고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계급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요소도 내포하지만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사고와 중산층이 부상하며 민주역량이 성장, 삶의 외연을 확대하고 의미를 심화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의 성숙 등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작품화한 것이 이 시대의 '산업소설'(industrial novel)과 다른 점이다.

사일러스와 갓프리 둘 다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폐쇄에서 개방의 과정에 이르나 다만 사일러스는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갓프리는 환경의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변화한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어도 현상 유지 속에서 안일함을 즐길 수 있으나 사일러스처럼 과거에 안주하고서는 의미있는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은 변화의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하여 자신을 변모시키는 것이다. 두 인물의 인간관계와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삶은 환경의 소산이고, 개인의 성격은 소속 집단과 계층의 역동적 영향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일러스 마녀』는 이처럼 사회적 환경과 그 속에서 변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성의 변모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Bibliography

I.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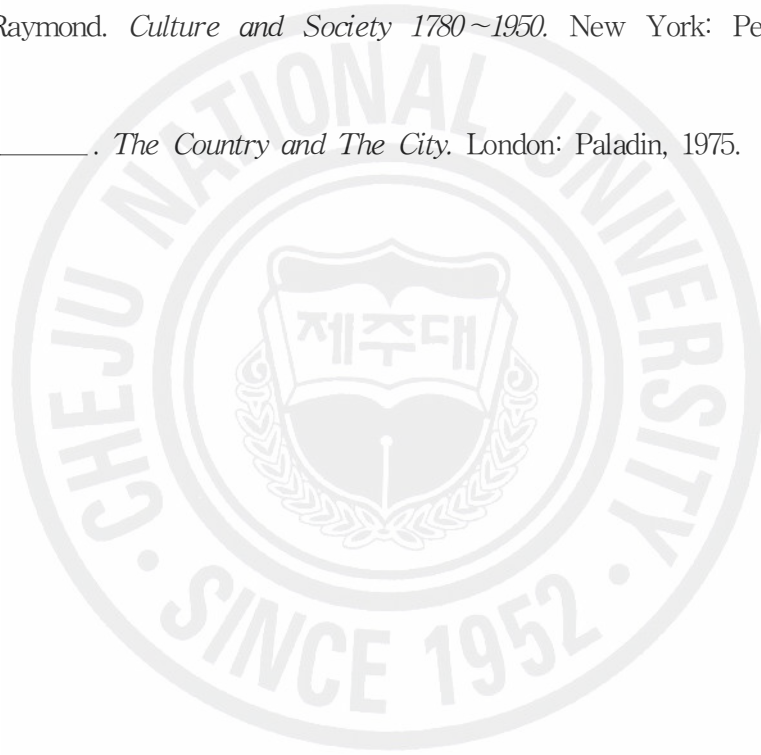
Eliot, George . *Silas Marner*. Ed. Young-Moo Kim. Seoul: Shinasa, 1997.

II. References:

- 김봉률. 「George Eliot의 유기체론과 리얼리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권정희. 「George Eliot의 소설 연구 - 道德的 비전과 에고이즘의 樣態-」.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스테판 에젤 . 『계급사회학』 . 신행철 옮김.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1.
- 안병직 외.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층』 . 서울: 까치, 1977.
- 양영수. 「빅토리아조 소설문학에 나타난 산업사회 저항」. 『영어영문학』 제9호 (2002).
- . 「조지 엘리엇 문학에 나타난 과학주의의 인간화 문제」. 『근대영미소설』 제5집 제2호 (1998. 12).
- 양효식, 「E.P. 톰슨의 계급이론:유물론적 비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경순. 「George Eliot의 소설에 있어서의 道德的 想像力」.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이영희. 「Charles Dickens의 소설에 나타난 19세기 영국사회의 계층갈등」.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제22집 제1호 (1989).
- 정기원. 「19세기 전반 영국 감리교와 노동계급」.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병조. 『영문학사 III-영국소설사』 . 서울: 을유문화사, 1986.
- 조정호. 『조지 엘리엇의 소설 연구』 .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 진명희, 「George Eliot의 *Silas Marner* 연구 - 불가해한 삶의 양상을 중심으로 -」. 『충주대학교 논문집』 제135집 제1호 (2000).
- Abrams, M. H.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5.

- Altick, Richard D.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73.
- Bennet, Joan. *George Eliot: Her Mind & Her Ar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Carroll, David R. *Silas Marner: Reversing the Oracles of Religion*. Ed. R. P. Draper.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2.
- Creeger, George R. Ed. *George Elio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6.
- Jones, R. T. *George Elio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Kim, Young-Moo. *George Eliot's Social Imagination in George Eliot's Silas Marner*. Seoul: Shinasa, 1969.
- Knoepfmacher, U.C. *George Eliot's Early Novel: The Limits of Realism*.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George Eliot, Henry James, Joseph Conrad*. London: Chatto & Windus, 1948.
- Leavis, Q. D. "Silas Marner," *Collected Essays Volume 1: The Englishness of the English Novel*. Ed. G. Sing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Introduction" *Silas Marner*. New York: Penguin Books, 1967.
- Levine, George. "Determinism and Responsibility." *A Century of George Eliot Criticism*. Ed. Gordon S. Haight, Boston: Houghton, 1965.
- Newton, K. M. *George Eliot*. London & New York: Longman, 1991.
- Millner, Ian. *The Structure of Values in George Eliot*. Prague: Charles University Press, 1967.
- Perkin, H. *The Origins of Modern English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9.
- Purkis, John. *A Preface to George Eliot*. Hong Kong: Longman, 1985.
- Reilly, Jim. *Shadow Time: History and Representation in Hardy, Conrad and George Eliot*.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3.

- Roberts, Neil. *George Eliot: Her Beliefs and Her Art*.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5.
- Shuttleworth, Sally. *George Eliot and Nineteenth Century Scienc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Thale, Jerome. *The Novel of George Eliot*. New York &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Watt, Ian. *The Victorian Novel: Modern Essays in Critic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New York: Penguin Books, 1982.
- _____. *The Country and The City*. London: Paladin, 1975.



<Abstract>

Contrasting Modes of Behavior of Social Classes in *Silas Marner*

Byun, On-Hoa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Soo

George Eliot wanted to get an insight into the English societ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era with a foreseeing eye. She thought that writer must describe relation of individual and society in an aspect of the times. She suffered for the confusion of values in transitional period and weighed up the relation of social class and individual.

Eliot did not represent the reality of her period with sentimental touch or idealize the contemporary society in her literary works. Her literary world represented objectively various aspects of reality because she had relation with various classes in the Victorian period and experienced over religious pilgrimage. Periodic background of *Silas Marner* is the era that conflict and struggle among classes were violent very much from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o the Reform Bill in 1832. The community of Raveloe is a rural village that was far from the rapidly changing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society, or the mobility in industrial city where the Middle Class were making rapid progress and social upheaval was under way. The Gentry's power is still mighty and people in Raveloe is within the flow of self-contained community. Lantern Yard is a rather modernistic city where the quality of English industrialization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was setting in and society is opened earlier than in Raveloe.

Silas changed himself in Raveloe to recover everything which had been lost in his birthplace Lantern Yard and adapted himself to society. Godfrey had closed relation with another because he did not want to lose his inherited properties. He also did not recognize class transition, rapid advance of the Middle Class, downfall of the Gentry because he had lived in rural district and not heard a bugle of coach or world opinion. Afraid of losing privilege as a Gentry who didn't follow the current, he lived a closed life without much contact with others. His life is novel and haughty but is led conservatively and passively: he could not create new life.

Silas experiences – social structure that social mobility and class movement had been arose from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urbanization – of Lantern Yard in his life. He also overcome his despair through honesty, industry and self-sacrifice love and came back to community. We can identify Eliot's sociological imagination that individual life can't be separated from society through Silas' recovering his humanity and his true self in the community of Raveloe.

Man has a desire to expand himself and recognizes necessity of life extension. At first Silas denies and neglects the meaning of the past life, but come to know how to utilize the past as future creative assets. On the other hand Godfrey lives unhappily because he never stop denying and closing the past life. Silas breaks off himself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and then converts his recognition through fostering Eppie. Thanks to Eppie he can hold communion with other people near about and ruminate about former religion objectively. But Godfrey cannot acknowledge his former errors and fine self – regenerative factor. He continues to live selfishly concealing the past and then is condemned to disgrace by his daughter

Eppie.

Eliot emphasized harmonious organic life between individual life and social conditions, stated clearly man could not live in isolation and described sociological imagination toward organic community. *Silas Marner* is not a mere parable without social or contemporary background but a novel that reflected the classes aspect of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English society.

